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양돈농가 실천지침 - 내 농장의 작은 실천이 큰 신뢰를 쌓는다! -

돼지고기 시장도 변화의 회오리 바람은 예외가 아니다. '양과 생산성'을 논하던 시기가 엇그제인데 벌써 '맛과 신선도'를 지나 '안전이 최고의 품질 기준'인 시기가 와 있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 검역 협약(SPS)에 따라 국제교역의 자유화, 동식물 검역의 상호 동등성 원칙, 상호 투명성 요구는 '위해요소 중점관제도(HACCP)' 설정기준을 통과하지 않은 돈육의 수출이 어렵게 됨은 물론이고, 국내 소비자로부터도 철저하게 외면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기본적인 사양관리와 방역위생의 허점을 항생제와 백신으로 버무려 놓아서는 안된다. 가두리 양식장을 하는 사람이 회를 피하고, 닭 키우는 사람이 치킨을, 목장하는 사람이 우유와 고기를, 우리 양돈인이 생산한 돼지고기를 부모 형제 자식, 도회지 사는 친구들에게 떳떳하게 먹이지 못한다면 우리의 밥상도, 조상님 제사상도, 회식도, 애들 소풍갈 때도 식품위생 선진국에서 공수 되어온 축산물로 차려질 것이다.

국제 식품 규격 위원회가(CODEX) 규정하는 식육위생의 정의를 살펴 보자. 우리 양돈인이 해야 할 실천행동 포인트를 발견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 식품규격 위원회(CODEX) 규정 식육위생 정의〉

1. 적절한 조리를 하여 섭취했을 때 감염이나 중독증이 없어야 한다.
2. 설정한 잔류허용 한계치 이상의 잔류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누가 봐도 오염물질이 없어야 한다.(예:주사바늘, 고름 등)
4. 일반 소비자에게 거절 당할 것으로 인식되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변색)
5. 엄정한 위생관리 기준을 기키면서 생산되어야 한다.
6. 관련국가 법규에서 지정한 불법물질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신 현 덕 원장
신베트 동물병원



세계 어느 나라 돈육 소비자도 생산자에게 교정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는 않는다. 특별히 민감한 사람에게 생긴 부작용도, 참을 만한 경우이더라도 뉴스거리가 되고 인터넷을 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양돈인들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사료내 약제첨가가 너무 많다. 둘째, 환돈사 또는 격리돈방이 없거나 부족하다. 셋째, 기본 사양관리를 무시하고 약제사용량을 늘리는 경우이다.

넷째, 돈군 흐름이 불량하고, 올인&올아웃 시스템이 안 되는 것이 문제이다.

다섯째, 사용기구의 비위생적 사용으로 인한 문제도 크다.

여섯째, 끊임없는 농장직원들의 사양 및 위생관리 교육이 요구된다.

위 기준에 의거하여 식육검사에 합격된 것이 바로 안전한 식육이라는 것이다.

농장에서 생산한 돼지는 그 다음 공정인 도축가공공장의 직접원료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식육위생의 1차적 책임은 상당수 농장으로 돌아올 것임에 틀림없다.

현재 국내 사료회사와 도축가공공장의 '위해요소 중점관리 제도(HACCP)에 대한 관심과 대책은 농장현장의 그것에 비해 우위에 있는데, 가장 안전돈육 생산의 핵심위치에 있는 농장의 관심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브랜드 돈육 생산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농장 HACCP가 필수적으로 따라 붙으니 희망적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돼지고기 생산 비중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농장들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있다. 정부나 양돈협회 차원의 지원, 지도, 계몽교육이 더욱 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 자조금의 역할도 이 부분에 중점 강조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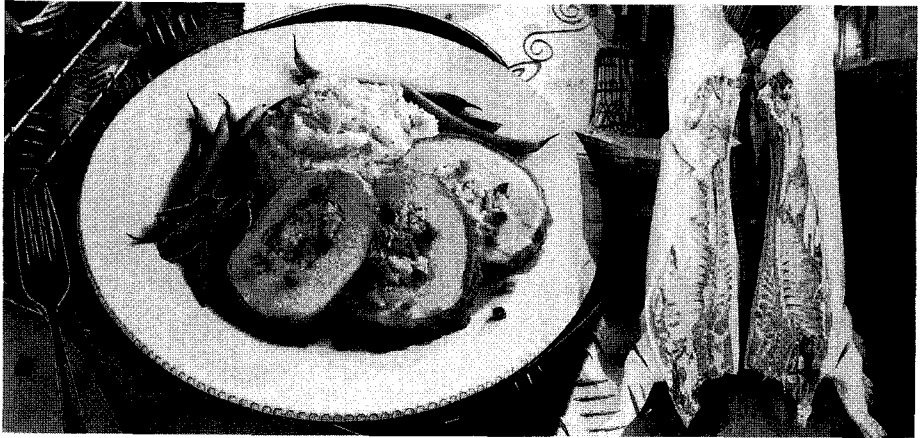
제대로 생산한 브랜드 돈육도, 헛간에서 비위생적으로 키운 돈육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 같은 대한민국 돼지고기로 인식되기 쉽기

때문에 안전돈육 무관심 생산자에 대한 지원, 교육과 더불어 제재 또한 강구되어야만 한다.

식품안전 위해요소는 10가지 인데 1. 자연독소 2. 미생물오염 3. 화학물질 오염 4. 살충제 5. 잔류약제 6. 동물 질병 7. 기생충 8. 부패 9. 불법 식품첨가물 10. 물리적 변성으로 분류된다. 이중 1번에서 7번까지는 농장 현장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식품안전에서 차지하는 생산농장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농장에서는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검역원과 대한양돈협회가 발간한 '돼지고기 품질인증 프로그램'을 숙지하고 실천하면 된다. 농장 HACCP를 전문컨설턴트를 통해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면 된다. 말은 쉽지만 양돈현장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상황이 변화하기 때문에 해결이 어려운게 사실이다.

문제의 시작은 농장 사육환경의 변화, 사양관리 부실, 방역위생상의 허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질병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면서부터이다. 그래서야 항생제를 찾고, 백신을 접종하



▶ 우리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약제에 대해서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사용방법을 양심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고, 소독약을 뿌리고, 쥐를 잡고, 파리, 모기를 없애는 노력을 한다.

음수소독도 해야 하고 급이라인과 사료도 소독해야 한다. 돈방의 세척과 소독도 해야 한다. 다양한 화학제제가 동원 될 수 밖에 없다. 화학제품의 사용이 갑자기 증가할 때 안전돈육 생산은 위협을 받게 된다.

항생물질과 합성항균제는 내성균을 생성하고 과민증과 발암을 일으킬 수 있다.

호르몬제는 신체발육이상과 발암을 유발시킨다. 오염물질로서 중금속과 농약류는 만성중독증을 유발시키고 곰팡이독소는 신체 기능장애와 암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약제에 대해서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사용방법을 양심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국내 양돈현장에서 흔히 보는 안전돈육 생산상의 허점(아킬레스건)을 열거해 본다. 세계 어느 나라 돈육 소비자도 생산자에게 교정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는 않는다. 특별히 민감한 사람에게 생긴 부작용도, 참을 만한 경우이더라도 뉴스거리가 되고 인터넷을 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양돈인들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사료내 약제첨가가 너무 많다.

번식돈 사료에도, 육성/비육돈 사료에도 그렇다. 사료에 약제를 첨가하는 것은 안전돈육 생산과 배치된다. 번식돈사료내 약제첨가는 휴약기간 관리가 어려운 면이 있다. 해법은 음수투약이다. 물탱크와 투약시설을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 적용하면 된다. 약효도 빠르고 잔류문제도 최소화 된다.

육성/비육사는 자동급이 라인을 2중으로 깔고 투약사료를 분리급여할 수 있다.

둘째, 환돈사 또는 격리돈방이 없거나 부족하다.

사육시설에 비해 두수가 많아서이거나 돈군흐름도가 불량한 경우 때문이다. 때문에 각각의 환돈을 정상돈과 같은 방에 키우면서 음수나 사료를 통해 투약하는 방법은 병주고 약 많이 쓰는 경우이다.

특히 요즈음 PMWS문제가 다발하면서 환돈도 많고 화학제제도 많이 써야하니 돈육안



전성이 심히 걱정된다. 질병이 항생제와 백신을 부르고, 주사침을 쓰게 하고, 소독약을 뿌리게 하고, 살충제/살서제를 뿌리게 하는 것이다.

셋째, 기본 사양관리를 무시하고 약제사용량을 늘리는 경우이다.

수세소독, 환기, 밀사해소, 스트레스 최소화 등 조금만 움직이고 신경 쓰면 되는데 말이다. 전문가를 만나서 프로그램을 세우고 평상시에 차분히 실천하는 것이 포인트가 된다. 사양관리 무시는 질병으로 발현되고 결국인 약제 사용량을 증가시킨다.

전 세계적으로 PSY 증가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로 인해 초유섭취 불량자돈의 증가, 이유체중 낮은 돼지의 증가, 조기이유자돈과 사육시설의 부조화 등이 PMWS 같은 문제를 초래했다고 본다.

폐수처리 대책이 약하다고 수세소독을 안하는 농장은 걱정이 된다.

넷째, 돈군 흐름이 불량하고, 울인&울아웃 시스템이 안 되는 것이 문제이다.

계절을 타는 양돈(혹서대책 불량이 주원인), 돈사시설 레이아웃(구성)상의 불균형, 두수 욕심, 시설개선 및 투자 계획 미비는 결국 돼지에게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키우고, 질병을 계속 전파시키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그래서 인력이나 시설투자를 못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다섯째, 사용기구의 비위생적 사용으로 인한 문제도 크다.

견치용 니퍼, 단미기, 이각기, 거세도구, 주사침의 비위생을 포함해서 관리자의 위생 마인드와 사용기술상의 문제는 질병전파를 매개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단언한다. 분노로 범벅이 된 돼지를 제대로 보정하지도 않은 채 항생제와 백신을 주사하는 걸 보면 섬뜩하다. 주사침이 부러지는 것과 주사부위의 화농이 걱정된다.

조금 늦더라도 위생적으로 차분히 주사해야 한다. 주사침 잔류는 '만의 하나'가 용납이 안 되는 일대 사건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끊임없는 농장직원들의 사양 및 위생관리 교육이 요구된다.

양돈협회 세미나도 있고 사료/약품회사 세미나도 있고, 필요하면 컨설턴트를 농장으로 부를 수도 있다. 질병이 변하고 약품도 변화한다. 옛날 그 병, 그 제제가 아니고 각종 법률과 제도도 변하기 때문에, 이를 그 때, 그 때 적용하지 못하면 화를 부를 수 있다.

예로부터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면 앓된다 일렀다. 모르고 한 일이라고 식품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했을 때는 용납되지 않는다. 다 같이 관심갖고, 잘 해야 우리 양돈산업이 살아남는다.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가 '바로 나'여서는 양돈인의 자존심이 너무 크게 걸려있다.

기본적인 사양/위생관리가 안전 돈육생산의 밑거름이다. **양돈**

